

2. 羅津 · 先鋒地帶內 自由市場의 開設

- (개요) 北中은 나선지대에 무비자 입국 허용 및 화폐 개혁 조치를 단행
- (背景) 나선지대의 외자 촉진 및 변경 지역내 밀무역의 양성화 유도
  - (北韓 立場) 대외 식량 조달 창구로의 활용 및 나선지대내 적극적인 외자 유치 노력의 대외적 과시 등 이중적 목적을 가짐
  - (中國 立場) 변경 지역내 밀무역의 양성화 및 북한산 아편 유입 대책의 일환 등 국경 무역 질서 재정립을 위한 조치임
- (主要 內容) 1인당 5,000元(중국 인민幣) 범위내 면세 조치, 북한 원화의 미 달러와의 직접 교환 허용 및 대폭적인 평가 절하(2.16원/\$→200원/\$)
- (條件 및 展望)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의 촉진 계기 및 인근 변경 지역으로의 확대가 예상되나, SOC 부족과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의 장애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방 세계의 투자 유치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나선지대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국제 자유시장 개설에 합의

- (概要) 북중은 나선지대 관문인 원정교 주변에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제 자유시장을 개설
  - 북한과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6월 19일부터 중국 훈춘과 羅先 지대 관문인 원정교 주변에 첫 자유시장 개설에 합의함(종전에는 초청장 소지자에 한해 입국)
  - 북중간 변경 무역 거점은 신의주~단동, 나진·선봉(원정)~훈춘, 만포~지안(集安)을 비롯하여 11곳이 있음

북중간 자본주의 체제 도입의 과시 및 국경 무역 질서의 재정립이라는 이해 관계가 부합

- (背景) 나선지대의 외자 촉진과 변경 지역내 밀무역의 양성화 유도를 통한 국경 무역 질서의 재정립
  - (北韓 立場) 대외 식량 조달 창구로의 활용 및 나선지대내 적극적인 외자 유치 노력의 과시 등 이중적 목적
  - 일반 상품 교역이나 대외 식량 교역 창구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통한 나선지대내 외자 유치 촉진의 계기로 활용키로 함
  - (中國 立場) 변경 지역내 밀무역의 양성화 및 북한산 아편 유입 대책의 일환 등 국경 무역 질서 재정립을 위한 조치임
  - 압록강과 두만강을 끼고 성행해 온 양국간 밀무역을 합법적·제도적인 場으로 유도·양성화함으로써, 북한

산 아편 유입과 식량 구입을 위한 북한 주민의 잦은 월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합의하였음

- 북중간 무역액(96년) 5.6억 원중 변경 무역은 연간 약 3억 달러이고, 이중 밀무역은 수천 달러에 달함

보세 지역 형태로 1인당 5,000元(인민폐) 범위내의 면세 특혜와 대폭적인 평가 절하를 통한 국제 수준으로의 환율 적용

○ (主要内容) 일정 범위내의 거래에 대한 면세 조치, 북한 원화의 미 달러와의 직접 교환 허용 및 대폭적인 평가 절하를 단행하였음

- 하루 1인당 5,000元(인민폐) 범위내에 별도 신고없이 세금을 면제하는 보세시장 형태로 운영하면서 매주 3차례(월·수·금요일)에 걸쳐 거래하며,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운영할 계획임
- 북중간에 한해 실시하며, 중국은 개인 차원에서 식량과 석유, 가전 제품 등을, 북한은 기업소들이 약재와 비철금속 등을 물물 교환 형식으로 거래하고 있음
- 97년을 '나선 개발의 구체적 실현의 해'로 정하면서 서방 세계의 외자 유치에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 6월 1일부터 나선지대내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체로의 전환, 근로자와 농민들의 자영업 및 자유 판매 허용, 북한돈(외화와 바꾼 돈표)과 달러의 직접 교환 허용, 북한 원화의 평가 절하(2.16원/\$ → 200원/\$) 등

자유시장 범위가 인근 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것임

○ (效果) 인근 지역으로의 확대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도입의 촉진 계기가 될 것임

- 대상 지역이 圖們, 三合, 崇善 등으로 확대되고 외화 유통이 보다 자유로울 뿐 아니라, 나선지대내 외국 기업들의 달러 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노무 관리에 변화가 예상됨
- 북한은 인근 지역으로의 변경 무역 확대, 신의주 인근 압록강 하구 비단섬(新道郡)의 '자유경제무역지대'와 원산·남포의 '보세가공지역'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그러나 원정리의 자유시장 개설은 기존의 북중간 음성

적 거래가 제한적으로 양성화된 것에 불과하며, 북한 축 물품 공급 능력의 한계로 큰 성과는 없을 것임

나선지대는 물류 및 통신, 전력 등 기반 시설 부족과 불투명한 남북 관계 등으로 본격적인 외자 유치에 한계가 있음

- (條件 및 展望) 생산 요소와 각종 세제면에서는 양호하나, SOC 부족과 불투명한 남북 관계, 투자 보장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미비 등으로 나선 지대의 투자 유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가공후 재수출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수출자유지대 및 수출 가공구의 의미를 포함)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저렴한 생산 요소와 일부 세제 혜택, 원부자재의 조달 및 물자 이동에 용이한 물류 시설 등이 구비되어야 함
  -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특구와 비교한 나선지대는 인건비와 토지 임대료, 각종 세제면에서는 양호하나, 항만과 연계된 물류 시설과 통신, 에너지 등의 SOC 시설의 미비, 남북간 긴장 관계와 높은 국가 위험도, 투자 보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협소한 내수 시장 등의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여건임

(홍 순 직)

※ <참 조>

북한의 화폐 종류

구분	종 류		발행 기관	비 고
일반 화폐	지폐 (5종)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조선 중앙 은행	-1992년 7월(4차 화폐 개혁)의 화폐 개혁에 따른 지폐
	주화 (5종)	1전, 5전, 10전, 50전, 1원		-1전, 5전, 10전 주화는 1959년 2월(2차 화폐 개혁)부터 사용 -50전 주화는 1979년 4월부터 사용 -1원 주화는 1987년 12월부터 사용
외화와 바꾼 돈표	지폐 (8종)	1전, 5전, 10전, 50전, 1원, 5원, 10원, 50원	조선 무역 은행	-1995년 11월 화폐 교환에 따른 지폐 -'사회주의 국가 화폐와 교환한 돈표'와 '자본주의 국가 화폐와 교환한 돈표'로 구분

자료: 박유환, 『북한의 금융 제도와 남북한 금융 협력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1997. 5. p. 25.  
 주: 북한은 4차례에 걸쳐 화폐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제1차는 1947. 12. 6~12. 12일에, 제2차는 1959. 2. 13~2. 17일에, 3차는 1979. 4. 7~4. 12일, 4차는 1992. 7. 15~7. 20일에 단행되었음. 4차 개혁의 목적은 사장되어 있는 유휴 자금을 산업 자본화하는 동시에 주민, 기관, 기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과잉 유통성을 회수하여 현금 유통량을 축소함으로써 지하 경제(암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물가 인상을 억제하려는 데에서 시작됨